

강진군수

강진원 군수 민주당 복당 여부 최대 변수

강진군수 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강진원 군수의 민주당 복당 여부다. 지난 대선 때 노골적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지지한 탓에 복당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복당이 무산되면 현직 프리미엄에도 불구하고 무소속으로 힘겨운 선거전을 치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진원 강진군수, 이승욱 전 여수부시장, 장경록 전 기획실장, 광영체 도의회 위원장

3선에 도전하는 강진원(58) 강진군수에 맞서 이승욱(61) 전 여수부시장, 장경록(61) 전 강진군 기획정책실장, 광영체(70)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 등 3명이 군수 후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강 군수는 23년간 중앙부처와 전남도청의 주요 보직을 거친 행정전문가로 군정을 안정되게 운영했다는 평가다. 특히 강진을 스포츠 테마파크로 육성하고, 가우도를 질트레 수학여행지로 각인시키는 등 남다른 성과를 보여줬다. 현직 프리미엄과 탄탄한 지지기반이 강점으로 꼽힌다. 다만, 지난 대선 당시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손가락 기호를 표시한 혐의의 민주당이 직접 고발한데다, 민주당 후보군들의 반발도 거세 복당이 여의치 않아 보인다. 민주당에선 이승욱 전 여수부시장과

완도군수

재선 노리는 현 군수에 3~4명 도전장

신우철(64) 완도군수가 재선을 노리고 있다. 신 군수는 민주당 소속으로 3년의 짧은 재임기간 동안 지역민을 위한 수산정책을 마련하고 국제해조류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굵직한 성과를 냈다. '2017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는 애초 목표를 크게 웃도는 흥행 대박으로 지역 성장의 기틀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람회 통해 완도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향후 국내 해조류 산업의 획기적 발전, 완도 수산물의 세계시장 개척의 초석을 다졌다는 호평을 받았다. 그래서인지 민주당 내에서 아직까지 경쟁자가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우철 완도군수, 박현호 도의원, 김신 전 군의원, 천재영 전 순천부시장

국민의당에선 박현호(66) 전남도위원과 김신(54) 전 완도군위원의 출마가 예상된다. 박 의원은 완도·무안·곡성·영광군 부군수를 지낸 공직자 출신으로 풍부한 행정경험이 강점이다. 또 열정적인 의정활동도 지역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육사 출신의 강한 리더십이 강점이며, 인지도가 높아 신 군수의 대항마로 주목받고 있다.

김 전 군의원은 전남청년회의소(JC) 회장과 전남사부어류양식협회 ghl장을 맡는 등 사회활동이 활발하다. 지난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경선에서 1%포인트 차이로 부문을 삼킨 김 전 의원은 오랜 기간 바다 민심을 다지는 등 일찌감치 지방선거를 준비해왔다. 강성 이미지 탓에 유권자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천재영 전 순천부시장도 지역에서 꾸준히 거명되고 있다. 천 전 부시장은 전남도 환경정책담당관, 동부지역본부 본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환경·행정 전문가다. 환경직 출신으로 전남도 첫 부이사관(3급)과 부시장에 오르는 등 실력과 경륜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완도=정은조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해남군수

군정 비리 무주공산 ... 전·현 지방의원-관료 경쟁

해남군정은 비리로 얼룩졌다. 이 때문에 해남군수의 가장 큰 덕목으로 '도덕성'이 꼽힌다. 박철환 해남군수는 지난 5월 공무원 인사평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받아 군수직을 잃었다. 앞서 2011년 김충식 군수, 2008년 박희현 군수가 비리로 군수직에서 물러나 행정 공백 사태를 빚었다.



윤재갑 전 사령관, 명환관 도의원, 이길운 전 군의원, 윤광국 전 호남본부장

박 군수의 실형으로 해남군수 선거는 '무주공산'이 됐다. 전·현직 지방의원들과 관료 출신들이 군수 도전에 나섰다. 민주당에선 윤재갑(62) 전 해군 군수 사령관, 이길운(51) 전 해남군위원이 거론된다. 윤 전 사령관은 무소속으로 2차례 총선에 도전해 낙선했다. 총선을 치르면서 인지도도 끌어올린 게 군수 도전의 동력이 되고 있다. 3선의 이 의원은 군의회 의장 출신으로 해남·중·충동문화 부회장 등을 맡으며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해와 밀바닥 정서를 잘 안다는 게 강점이다. 국민의당에서는 명환관(55) 전남도의

원과 윤광국(58) 전 한국감정원 호남본부장이 뛰고 있다. 전남도의회 의장을 지낸 명 의원은 후보군 중 인지도면에서 한두 발짝 앞서 있다는 게 지역정가의 대체적 시각이다. 10대 전반기 의장과 경제관광문화위원회장 등 도의회 요직을 두루 거치며 쌓은 풍부한 의정경험이 돋보인다.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 팔을 걷어붙이는 등 '일 잘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정치인'이란 호평을 듣고 있다. 깨끗한 이미지에 군 전역을 아우르는 높은 인지도와 조직력도 강점이다. 윤 본부장은 민화식 전 군수의 처남으로 인지도와 조직력이 있고, 해남윤씨 지지세도 있어 주목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해남=박희철기자 dia@kwangju.co.kr

진도군수

후보 8명 난립... 이동진·박연수 리턴매치 주목



이동진 진도군수, 박연수 전 군수, 박인환 전 부이사관, 장일 도의원, 한기민 전 경찰서장, 김희수 전 농산과장

진도군수 선거는 의외로 치열하다. 전남에서 가장 많은 8명의 후보군이 형성됐다. 3선을 노리는 이동진(72) 진도군수와 박연수(69) 전 진도군수의 리턴매치가 주목된다. 여기에 박인환(7) 전 선관위 부이사관, 장일(61) 전남도의원, 한기민(62) 전 목포경찰서장, 김희수(62) 전 진도군청 농산유통과장, 이양래(60) 전 진도읍장, 오만주(63) 전 진도군 문화예술과장 등이 나선다. 전남개발공사 사장 등 전문경영인 출신인 이동진 군수는 재임 기간 군정을 안정시키고 낙후된 지역경제 회복에 적극 나서는 등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선 연임을 통해 진도 성장의 발판을 확실히 만들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다만, 3선에 대한 거부감과 고령인 점이 약점으로 꼽힌다. 민주당 내에서는 박인환 전 부이사관

이 이 군수에게 도전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고위공무원 출신으로 참신성은 있지만, 지역활동이 부족해 인지도가 낮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국민의당에서는 박연수 전 군수가 재기를 노리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2500여 표 차로 이 군수에게 석패한 이후 지역기반을 공고히 하며 와신상담하고 있다. 도의회 3선인 장일 의원은 주요 상임위원장을 두루 거쳤다. 진도 출신 첫 도의회 부의장과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을 지내는 등 정치력과 관록도 두드러진다. 한기민 전 서장도 풍부한 공직경험과 각계 인맥 등을 바탕으로 진도 재도약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합리적 성품에 강한 추진력, 지역에 대한 열정이 돋보인다는 평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영암군수

군수·지방의원·공직자 출신 대거 출사표

전동평(56) 현 군수의 재선 도전에 맞서 지방의원과 공직자 출신 등이 대거 출마를 준비중이다. 민주당에서는 전 군수에 맞서 김연일(54) 전남도위원이 거론되고 있다. 전 군수는 국립비독박물관 유지 등 영암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농업·관광활성화를 이끄는 등 지역 발전의 기틀을 착실히 다지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3선 도위원을 지낸 전 군수는 탄탄한 조직력에 현역 프리미엄까지 갖췄으며 재선 도전 성공을 자신하고 있다. 현재 전남도의회 경제문화관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영암군의 의장 등을 지내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바둑을 다져왔다.



전동평 영암군수, 김연일 도의원, 김철호 군의원, 박소영 전 목포시국장

국민의당에서는 김철호(66) 영암군의원과 박소영(62) 전 목포시 기획관리국장, 박영배(69) 영암군의회 의장, 이하남(72) 영암군의원, 최영열(54) 전 전남도 종합민원실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재선의 김 의원은 전남도당 대변인을 맡는 등 당내 활동을 활발히 해왔으며, 유일한 여성 후보군인 박 전 국장은 목포시 관광기획과장, 회계과장, 부시장 직무대리 등 주요 요직을 지내는 등 풍부한 행정



박영배 군의회의장, 이하남 군의원, 최영열 전 민원실장

경험이 강점으로 꼽힌다. 박 의장은 6선의 군의원을 지냈고, 4차례 의장을 맡는 등 24년 간의 풍부한 의정 경험이 강점이고, 이 의원은 학산·삼호·시중·신북면장 등을 지내는 등 지역을 잘 아는 인물로 알려졌다. 최 전 실장은 지역구 박준영 국회의원을 오랜 기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온 데다 조직력과 인지도 등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는 평가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영암=문병선기자 moon@kwangju.co.kr

무안군수

현 군수 낙마 전·현 지방의원 등 6명 치열한 각축전



김산 전 군의회의장, 이동진 군의회의장, 정영덕 도의원, 나상욱 전 조합장, 임재택 전 초당대교수, 김호산 사업단 대표

김철주 무안군수가 비리 혐의로 구속돼 사실상 재도전이 좌절됐다. 전·현직 지방의원들을 중심으로 '무주공산'에 누구 오를지 치열한 각축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안군수 선거는 현직 군수가 낙마한데 따른 지역사회 자존심 회복, 흐트러진 공직기강 재정립 등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에서는 김산(60) 전 무안군의회 의장, 이동진(59) 무안군의회 의장, 정영덕(54) 전남도의원 등 지방의원들이 공천장을 놓고 경쟁할 전망이다. 재선의 정영덕 의원은 전남도의회에서 지역내 최대 인연인 무안공항 활성화와 호남고속철(KTX) 무안공항 경유 등 안건을 주로 다루며 지역민의를 대변해 왔다. 이동진 의장은 무안군상공인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김산 전 의장은 2차례 군의원을 지낸 경력을 앞세워 정치적 행보를 넓히고 있다. 국민의당에서는 나상욱(64) 전 목포무안신안축협조합장, 임재택(66) 전 초당대교수, 김호산(54) 황토랑고구마 클러스터사업단 대표 등이 물망에 오른다. 나상욱 전 조합장은 축산인들을 중심으로 한 지주세력이 든든한 힘이다. 무안 재도약의 적임자임을 자임하며 바다 민심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산 대표는 '성공한 젊은 CEO'를 목표로 지주세력이 든든한 힘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설립한 아태평화재단 행정실장 등을 지냈다. 임재택 교수는 백제고·문태고 교장을 지낸 교육 전문가로, 학부모와 노인들에게 인기가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무안=임동현기자 jdh@kwangju.co.kr

영광군수

재선 노린 현 군수에 도의원·전 군수 도전장



김준성 영광군수, 이동권 도의원, 정기호 전 군수, 강종만 전 군수, 정병걸 회장

김준성(65) 영광군수가 탄탄한 입지를 바탕으로 재선을 노린다. 이에 맞서 이동권(56) 전남도의원 민주당 내 대항마로 나선다. 또 정기호(63) 전 군수와 강종만(63) 전 군수도 재기를 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당에서는 정병걸(69) 자동차검사정비조합연합회 회장이 도전한다. 김준성 군수는 무리없이 군정을 이끌었다는 평이다. 미래전략산업인 e-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등 투자유치에 성과를 냈고, 관광인프라 구축에도 매진했다. 특산품인 모깃잎 송편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 등 지역 브랜드 가치 상승도 이끌었다. 특히 무소속으로 당선돼 총선을 앞두고 복당, 이석호 의원 당선에 큰 도움을 줬다. 이 의원 측에서 '영광 때문에 당선됐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전한다. 현직 프리미엄에 탄탄한 조직력이 강점이다. 3선의 이동권 도의원은 풍부한 의정경험 등 관록이 돋보인다.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 온 점도

이 이 군수에게 도전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고위공무원 출신으로 참신성은 있지만, 지역활동이 부족해 인지도가 낮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국민의당에서는 박연수 전 군수가 재기를 노리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2500여 표 차로 이 군수에게 석패한 이후 지역기반을 공고히 하며 와신상담하고 있다. 도의회 3선인 장일 의원은 주요 상임위원장을 두루 거쳤다. 진도 출신 첫 도의회 부의장과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을 지내는 등 정치력과 관록도 두드러진다. 한기민 전 서장도 풍부한 공직경험과 각계 인맥 등을 바탕으로 진도 재도약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합리적 성품에 강한 추진력, 지역에 대한 열정이 돋보인다는 평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영광=김민석기자 mskim@

함평군수

안병호 군수 3선 누가 막을지 주목

안병호(70) 현 군수의 3선 도전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4명의 입지자들이 지지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안 군수에 맞서 배래욱(70) 전 도의원과 윤한수(61) 전 나비골농협 조합장이 경선에 도전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3선의 축협 조합장을 지낸 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안 군수는 축산 농가의 지지기반과 현역 프리미엄이라는 강점을 내세우며 3선 도전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안 군수는 민선 5·6기에서 지역민들과 약속한 공약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며 '풍요로운 합평, 행복한 군민' 실현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아들의 부정 보조금 지급 문제 등 인간 비위·구설수로 물의를 빚으면서 지역 민심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떤 평가를 내릴지 주목된다. 박 전 도의원은 재선의 도의원을 지낸 데다 합평 해보농협 조합장을 지낸 경험을 기반으로 일찌부터 선거 준비에 나서



안병호 함평군수, 배래욱 전 도의원, 윤한수 전 농협 조합장, 노두근 군의회 의장, 이운형

면서 조직 기반이 탄탄하다는 평가다. 4선 농협 조합장을 지내고 농업·농촌 전문가를 자임하고 있는 윤 전 조합장은 인지도와 조직력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국민의당에서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안 군수에 석패한 노두근(64) 전 강진부군수와 이운형(51) 함평군의회 의장이 군수 출마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부군수는 함평군과 강진군, 전남도청 등에서 40여년 간 근무한 행정 전문가로 꼽히고 있고,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패배를 '와신상담'하며 실욕을 버리고 있다. 이 의원은 지역 각종 행사 등에 얼굴을 내미는 등 지역민심을 파고 들며 지지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함평=황윤학기자 hwang@

신안군수

고길호 3선 도전에 전 군수 등 도전



고길호 신안군수, 정연선 도의원, 박우량 전 군수, 임홍빈 도의원, 김승규 전 사무처장, 박석배 부의장

신안군수 선거는 고길호(72) 신안군수가 3번째 도전에 나선다. 고 군수가 국민의당 소속인 탓에 지역 명망가들이 민주당 간판을 달고 도전장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섬으로 구성된 신안군은 섬별로 정치적 색깔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고 군수는 섬이라는 지역 정서와 다르게 전체적으로 고른 지지도 받고 있다. 고 군수는 재임기간 무난하게 군정을 이끌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직 프리미엄도 플러스 요인이지만, 고 군수를 3번이나 하려고 한다는 경계심과 고령이라는 점이 약점이다. 국민의당 내에서는 고 군수에 맞서 정연선(64) 전남도의원 예선전을 치른다. 정 의원은 전남도의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을 맡는 등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다.

민주당에는 중랑감 있는 인물들이 공천장을 놓고 격돌한다. 2차례 신안군수를 지낸 박우량(62) 전 군수는 고 군수에 맞설 강력한 대항마로 꼽힌다. 오랜 기간 다져진 탄탄한 조직력과 높은 인지도는 강점이다. 3선의 임홍빈(57) 전남도의원도 만만찮은 저력을 지녔다는 평이다. 신안 최초 3선 도의원으로 풍부한 지방자치 경험 등 지역사회에 '준비된 일꾼'이란 인식이 쌓일 만큼 관록이 돋보인다. 지난 선거에서 1900여표 차로 석패했던 김승규(62) 전 기획재정부 북권위원회 사무처장이 설욕을 노리고 있다. 김 전 사무처장은 청외대 민정행정관을 지낸 행정 전문가다. 박석배(54)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도 바둑을 다지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신안=이상선기자 sslee@